

계약생산과 초국적 농식품 체계: 제주도 제스프리 골드키위 농업을 사례로

장영진*

Contract Farming and the Transnational Agri-food System: The Case of Zespri Gold Kiwifruit Farming in Jeju Island

YoungJin Jang*

요약 : 본 연구는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초국적 유통업체 제스프리사와 제주도 서귀포시 농가 간 제스프리 골드키위 계약생산에 주목하고, 계약생산의 목적과 실재를 고찰하여 지역농가가 초국적 농식품 체계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지역농가는 계약생산을 통해 제스프리사의 글로벌 수급 전략에서 로컬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제스프리사가 주도하는 초국적 농식품 체계에 통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기업은 생산요소 공급에서 제한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생산기술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도 현지 생산자와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농업에 대한 계약기업의 통제력은 제한되고, 지역농가와 기업 간 관계는 농가가 능동적으로 생산에 참여함에 따라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어 : 제주도, 제스프리 골드키위, 계약 생산, 초국적 농식품 체계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ocess by which local farmers are integrated into the transnational agri-food system. To that e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urpose and reality of the contract farming for Gold Kiwifruit between Zespri International, a transnational fruit producer based in New Zealand, and farmers in Seogwipo-si, Jeju Island. Through this contract farming, Jeju farmers were contributing to Zespri's global distribution strategy and helping the corporation meet local demand. In the process, local farmers were being integrated into the transnational agri-food system led by Zespri. In the cooperation between these two parties, the company took a limited role in providing production resources, and it consulted local producers in applying production technologies to local sites. Thanks to such practices, the company's influence on local farming was limited, and local farmers were able to function proactively in production. Therefore, the company and the farmers maintained a horizontal relationship.

Key Words : Jeju Island, Zespri Gold kiwifruit, contract farming, transnational agri-food system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angyj@knue.ac.kr)

1. 서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농업의 재구조화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역 농가가 산업적 농식품 체계(industrial agri-food system)에 통합되고 있다는 점이다(Whatmore, 2002). 그 중심에는 집약적 생산방식을 채택한 대규모 농기업과 지역농가 간 계약생산(contract farming; contract production; contract cultivation)이 있다. 계약생산이 지역의 농산물 생산자와 대규모 농기업을 이어주는 주요 기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 지역과 부문에 집중됨에 따라 농가별·작물별로 그 통합의 정도는 상이하다. 따라서 계약생산은 지리학자들의 다음과 같은 의문을 해결해 줄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로컬 행위자들은 농식품 체계의 네트워크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가?’(Marsden, *et al.*, 1996, 371)

계약생산은 농산물 유통업체나 가공업체 등 대규모 농기업이 대량의 농산물을 구득하는 몇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이다. 첫째는 시장에서 구매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주곡 작물을 가공하는 기업에서 채택한다. 둘째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플랜테이션 방식으로서 노동자의 고용 및 농작물 생산을 기업이 직접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양자의 중간 형태로서 계약생산이 있다. 기업이 농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은 채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통제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Key and Runsten, 1999). 계약생산에서 농부는 플랜테이션과 달리 ‘노동이 아닌 작물을 판매한다.’ 다시 말하면, 생산을 계약 농가에게 남겨둠으로써 기업은 농업생산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White, 1997, 104).

Little and Watts(1994, 9)에 의하면, 계약생산이란 ‘계약에 의한 물량, 품질, 가격, 공급시점 등에 대한 상세한 거래 약정, 특정 투입물의 공급 그리고 생산에 대한 통제 등에 의해, 생산을 직접 결정

하는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의 수직적 조정 방식’이다. Singh은 이를 간단하게 ‘계약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 및 공급 체계(2002)’라고 정의한다.

계약생산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Little and Watts가 1994년에 펴낸 *Living under Contract: Contract Farming and Agrarian Transformation in Sub-Saharan Africa*이다. 이 책에서는 케냐의 원예농업, 짐바브웨의 설탕·차·목화농업, 감비아의 주곡농업, 코트디브아르와 가나의 팜유 농업 등의 사례를 통해 제3세계의 계약 생산을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멕시코와 인도의 채소, 카메룬의 팜유, 미국 남부의 계육, 오스트레일리아의 낙농과 밀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Key and Runsten, 1999; Singh, 2002; Konings, 1998; Boyd and Watts, 1997; Pritchard, 1998).

계약 생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작물의 특성 또는 기술적 특성에 기반 한 논의가 지배적이다. 고전적 수출작물을 생산하는가, 원예작물을 생산하는가, 아니면 주곡 작물을 생산하는가에 따라 분류한다. 작물은 각각의 생산조건 및 노동제도 와 관련이 있고 이에 따라 로컬에 대한 영향은 서로 달라진다(Little and Watts, 1994). 다시 말하면, 상품 특수적 요소는 상이한 조직을 구성하게 하고 상이한 제도를 낳는다. 특히, 신선 채소와 과일 부문은 새로운 기술과 경영 시스템, 그리고 대도시권 시장과 개도국 생산지역 사이의 기능적 조정에 기반을 둔 국제화된 수익창출을 보여준다(Pritchard, 1998).

따라서 농기업과 농가 간 계약 생산은 계약의 주체와 목적 및 생산지역에 따라 생산 방식, 기업과 농가 간 관계,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로 인해 계약생산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계약생산 주체의 측면에서 초국적 기업과 해외 농가 간 계약생산으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초국적 기업과 해외 농가 간 계약생산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주로 제3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농산업의 성장에 의한 초국적 기업의 진출과 이로 인한 글로벌 분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계약생산이 소농과 농기업 간 협력에 기반 한 농촌개발 전략으로서 국제기구와 제3세계 정부에 의해 장려되었기 때문이다(Carney, 1994). 이와 같은 현상은 1980년대에 표면화되었다. 외환 위기로 인해 국가 파산에 직면한 국가들은 IMF와 세계은행에 의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출 다면화 전략을 추구하는 계약생산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은 계약생산의 전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차, 팜유, 설탕 등의 전통적인 수출품은 물론 신선 과일과 채소, 화훼 등 과거에는 취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품목이 계약에 의해 생산되어 수출되고 있다(Watts, 1994; Little and Watts, 1994).

최근 국내에서도 해외에 기반을 둔 초국적 유통업체와 국내 농가 간 계약생산이 과수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다.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초국적 키워¹⁾ 유통업체 '제스프리 인터내셔널(ZESPRI International Limited, 이하 제스프리사)²⁾과 제주도 남제주군(현 서귀포시) 농가 간 골드키위 계약생산(2003)이 그것이다. 제스프리사는 뉴질랜드산 키위를 '제스프리' 브랜드로 통일하고(1997) 자국산 키위의 유통 및 계약생산을 수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기업인 제스프리사는 주주가 전원 키워 농가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초국적 농식품 업체와 차별화되나 전문 경영인을 중심으로 초국적 유통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국내외 농가와 계약생산을 진행하는 등 기존의 초국적 농식품 기업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과수 부문에서 초국적 기업과 지역 농가 간 계약생산은 국내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로 드문 현상이다. 최근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해외 농산물이 시장을 잠식함에 따라 농산물 자급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생산비가 높은 북반구의 산업국가에서 과수 부문의 계약생산이 진행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계약기업의 목적과 작물의 특성 그리고 지역 농업의 발전 경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계약 생산의 주요 주체인 제스프리사와 제주도 농가가 계약 생산을 추진한 배경과 목적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계약 주체들의 생산요소 및 정보 공급, 계약 주체 간 관계의 측면에서 계약 생산의 실재를 고찰하여 지역 농가가 초국적 농식품 체계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키워 농업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관계자들과의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현지조사는 2013년 2월 4일~9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심층면담은 제주도청 감귤특작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제스프리 인터내셔널 코리아, 제주황금다래 영농조합법인, 제주참다래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제스프리 계약생산 농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 제스프리 골드키위 계약생산의 주체와 목적

1) 제스프리사: 주년 공급 및 현지시장 확보

초국적 유통업체 제스프리사가 국내 농가와 계약생산을 추진한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스프리사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세계에서 계약생산을 하는 초국적 농기업들은 현지

의 유리한 기후 조건과 저렴한 임금을 이용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 또는 수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Little and Watts, 1994). 그러나 제스프리스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기업은 뉴질랜드산 키위 시장의 확대를 통해 자국산 키위의 수출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주요 수출 시장은 유럽과 아시아 및 북아메리카 등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 산업지역이다(표 1).

제스프리스사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뉴질랜드산 제스프리 키위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표 2). 미국산은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낮은 생산비용과 지속적인 관세인하로 무장한 칠레산이 경쟁상대로 떠오르고 있으나 제스프리 키위는 고품질의 고가정책과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뉴질랜드산 키위의 출하시기가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키위의 출하시기는 품종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체로 남반구는 3월~11월(뉴질랜드, 4월~11월), 북반구는 9월~4월이다(농수산물유통공사, 2002). 이와 같이 출하가 중단되는 단경기(端境期)의 존재는 주년 공급에 의한 연중 수출을 어렵게 한다. 특히 대형 소매업체와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년 공급에 의한 안정적 물량공급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스프리스사는 단경기에 키위를 수입하여 재수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제스프리스사는 2000년부터 신품종 골드키위의 계약생산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갖추고자 했다(김병률 외, 2009). 주요 생산지역(표 3)은 유럽의 이탈리아와 프랑스,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아메리카의 칠레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이다(<http://www.zespri.com>). 계약생산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제스프리스사의 주요 수출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계약생산의 목적이 뉴질랜드산 키위의 단경기에 수출시장에서 현지생산을 통해 현지시장 또는 인접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제스프리스사의 주요 역할은 자국산 키위의 전세계 유통에 있고, 계약생산은 이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스프리스사는 현지 시장 또는 역내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계약규모를 설정할 뿐, 뉴질랜드산

표 1. 제스프리 키위의 판매지역(2011)

지역	판매 비율(%)
계	100.0
유럽	48.5
아시아(일본, 한국)	44.7 (16.3, 7.0)
북아메리카	6.8

주 1: 판매비율은 상자(tray) 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 2: 한국은 1990년 0.2%, 1995년 1.7%, 2011년 7.0%.

출처: <http://www.zespri.com>

표 2. 한국의 국가별 키위 수입량의 변화

(단위: 톤, %)

국가명	1997	2000	2005	2010	2012
계	7,999 (100.0)	5,228 (100.0)	26,751 (100.0)	28,514 (100.0)	28,944 (100.0)
뉴질랜드	4,827 (60.3)	4,186 (80.1)	19,469 (72.8)	22,583 (79.2)	20,139 (69.6)
칠레	1,845 (23.1)	571 (10.9)	5,931 (22.2)	5,829 (20.4)	8,805 (30.4)
미국	1,327 (16.6)	356 (6.8)	1,351 (5.0)	102 (0.4)	0 (0.0)
기타	0 (0.0)	115 (2.2)	0 (0.0)	0 (0.0)	0 (0.0)

주: 뉴질랜드산 키위는 제스프리스사에서 수입된 것임.

출처: 농수산물 수출지원 정보(www.kati.net)

표 3. 제스프리 골드키위 계약생산 국가

계약생산 국가	농가(호)
이탈리아(Emilia-Romagna and Latium)	150
프랑스(Corsica and Aquitaine)	50
칠레	-
오스트레일리아	-
일본(에히메현(愛媛県), 사가현(佐賀県))	600
한국(제주도)	148

출처: 제스프리 인터내셔널 코리아; <http://www.zespri.eu>; 제주황금다래 영농조합법인; <http://www.zespri.com>; <http://www.zespri-jp.com>;

키위시장을 잠식할 정도로 규모를 확대하지는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내 골드키위 판매량을 고려하여 약 100ha 정도로 계약면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제3세계에서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계약생산을 수행하는 초국적 농기업의 일반적인 특성과 확연히 구분된다.

2) 남제주군 및 지역 과수농가: 감귤농업의 대안으로서 안정적 소득 확보

제스프리사가 계약생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농민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주체는 당시 남제주군(현 서귀포시) 당국이었다. 그 배경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에서 과수농업, 나아가 감귤농업이 차지하는 지위와 이 산업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계약생산이 성사된 2003년 제주도 농산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과수이다(면적 41.6%, 조수입 45.1%).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2011년에는 과수 부문의 조수입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표 4).

작목별 비중에서는 단연 감귤류가 가장 크다(표 5). 2003년의 경우 생산면적은 98%를 넘었고, 조수입은 약 97%에 달했다. 2011년에도 이러한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표 6), 과수 생산면적은 자연적 조건이 우수한 남부의 서귀포시(2003년 62.5%, 2012년 66.7%)가 북부의 제주시(2003년 37.5%, 2012년 33.3%)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감귤류에 해당되어 감귤류를 중심으로 지역농업이 전문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제주도 전체의 감귤 재배지역은 1998년 정점에 도달(25,860ha)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 20,595ha에 이르렀다(표 7).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UR협상과 WTO체제의 출범에 의해 글로벌 수준에서 진행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의 증가와 이에 대한 국가의 수용에 있다. 1990년대에 본격화된 신선 과일의 수입, 특히

표 4. 제주도 농산물의 조수입 추계

구분	2003년산		2011년산	
	면적(ha, %)	조수입(백만 원, %)	면적(ha, %)	조수입(백만 원, %)
계	60,045 (100.0)	1,076,378 (100.0)	51,222 (100.0)	1,553,753 (100.0)
식량작물	15,481 (25.8)	150,831 (14.0)	11,324 (22.2)	150,217 (9.7)
특용작물	5,573 (9.3)	57,555 (5.4)	2,745 (5.4)	35,257 (2.3)
채소류	13,561 (22.6)	330,250 (30.7)	15,571 (30.6)	555,329 (35.7)
과수	25,014 (41.6)	485,858 (45.1)	21,034 (41.3)	798,645 (51.4)
화훼	416 (0.7)	51,884 (4.8)	278 (0.5)	14,305 (0.9)

주: 식량작물에는 맥류, 잡곡, 두류, 서류, 특용작물에는 유채, 참깨 등이 포함됨.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표 5. 제주도 과수의 조수입 추계

구분	2003년산		2011년산	
	면적(ha, %)	조수입(백만 원, %)	면적(ha, %)	조수입(백만 원, %)
계	25,014 (100.0)	485,858 (100.0)	21,034 (100.0)	798,645 (100.0)
감귤류	24,560 (98.2)	470,415 (96.8)	20,608 (98.0)	764,158 (95.7)
단 감	213 (0.8)	6,214 (1.3)	74 (0.4)	1,343 (0.2)
참다래	141 (0.6)	5,319 (1.1)	258 (1.2)	22,330 (2.8)
기타	100 (0.4)	3,910 (0.8)	94 (0.4)	10,814 (1.3)

주: 감귤류는 온주감귤과 만감류를 모두 포함한 것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표 6. 제주도의 지역별 과수생산

(단위: ha, %)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감귤류	기타	소계	감귤류	기타
2003	25,020 (100.0)	9,384 (37.5)	9,121 (36.5)	263 (1.0)	15,636 (62.5)	15,439 (61.7)	197 (0.8)
2012	21,050 (100.0)	7,005 (33.3)	6,788 (32.3)	217 (1.0)	14,045 (66.7)	13,807 (65.6)	238 (1.1)

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기초 자치단체(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가 2개 행정시로 개편되었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표 7. 제주 감귤의 생산 추이

(단위: ha, 100호)

연도	면적	농가
1980	14,094	199
1985	16,969	233
1990	19,414	256
1995	21,605	265
1998	25,860	362
2000	25,796	365
2005	21,430	306
2010	20,747	309
2012	20,595	31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1997년의 오렌지와 감귤 시장의 개방은 소위 ‘감귤 파동’으로 일컬어지는 지역 농업의 위기를 초래

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대체 작목의 전환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특히 감귤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주감귤의 대체를 위한 작목전환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 작목 가운데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높은 수익을 내는 한라봉과 천혜향 등의 만감류가 대표적이다(표 8). 이는 감귤의 비중이 높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만감류의 대부분은 서귀포시에서 생산(2012년 현재 80.2%)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감류의 생산면적은 증가하는 가운데, 만감류 내에서는 수익성에 따라 품종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남제주군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감귤 생산면적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면서 대안 모색에 주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2003년 제스프리사로부터

표 8. 제주도 만감류 생산 추이

(단위: ha)

연도	계	유자	금감	청견	네이블오렌지	한라봉	친혜향	레드향	기타
1997	539.9	106.8	136.3	83.1	51.8	82.5	-	-	79.4
1998	611.0	102.1	125.0	125.8	45.3	134.6	-	-	78.2
2000	664.9	30.5	131.9	120.9	49.3	264.9	-	-	67.4
2002	973.8	12.2	122.7	110.6	44.5	621.0	7.8	-	55.0
2004	1,464.0	5.1	90.0	96.6	20.8	1,100.6	70.5	-	80.4
2006	1,494.0	5.1	95.2	94.0	18.5	1,128.2	86.9	-	66.1
2008	1,531.9	4.8	79.5	77.0	9.1	1,188.2	112.3	-	61.0
2010	1,700.7	4.8	55.6	76.8	7.4	1,291.9	152.2	38.7	73.3
2012	1,869.6	7.7	41.0	65.9	5.1	1,361.7	189.7	75.1	123.8

주: 최대 생산면적 50ha 이상을 기록한 과수를 정리한 것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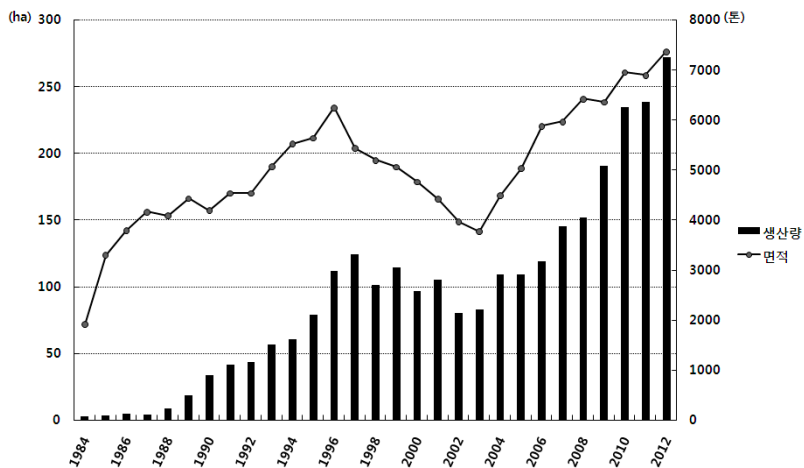


그림 1. 제주도 키위 생산면적과 생산량의 변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계약생산을 제안 받게 된다. 이에 남제주군은 대체작목으로서 골드키위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003년 말 최초로 4개 농가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면적이 약 100ha에 도달할 때까지 계약농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계약생산이 농민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계약생산의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계약생산은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계

약업체가 전량 구매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감귤의 판로 문제로 고통 받던 지역농가에게 안정적인 소득의 확보는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됨에 따라 폐원 대상 과수였던 키위의 재배면적은 골드키위 계약생산의 영향으로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그림 1). 현재 제주도에서 키위는 만감류를 제외하면 대규모로 생산되는 과일 가운데 생산면적이 증가하는 유일한 작목으로서 지역농업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3. 제스프리 골드키위의 계약생산과 초국적 농식품 체계

1) 계약주체의 투입물 공급

일반적으로 계약기업은 작물의 생산에 필요한 투입물과 서비스를 농가에 제공하고 농가는 토지와 노동을 제공한다. 개도국의 경우 해당 작물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와 관련된 투입물과 서비스도 지역 내에서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소시장의 부재는 전문지식과 설비 및 농약과 종자에 대한 기업의 독점적 통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 기업은 종자, 살포 및 수확 기계, 비료 또는 살충제, 관개 및 토양관리 설비 등을 공급하게 된다(Key and Runsten, 1999).

그렇지만, 제스프리사는 다양한 투입물 가운데 묘목 한가지만을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역 농가에게 묘목생산을 위탁하고 생산된 묘목을 계약농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대신 계약농가는 특허권을 가진 계약기업에게 로열티(매출의 15%)를 지불하고 불법으로 재배하거나 출하하는 것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생산된 농산물의 개인적 거래 및 선과 후 비상품의 거래가 금지되며 불법 유통시 벌금이 부과되는 등 계약기업은 품종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계약생산에 참여하는 농가는 키위생산에 자신의 토지와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계약농가의 영농규모를 살펴보면, 계약생산은 기존 과수농가의 작목전환을 통해 진행되었으므로, 기존 영농규모는 골드키위 생산규모(2012년 평균 0.75ha)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전형적인 자영농이 골드키위 생산농가의 영농규모를

대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영농규모로 인해 기존의 가족노동 중심의 농장 운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농가별로 생산규모가 1ha를 넘는 경우에는 가족 이외에 1~2명의 노동자를 별도로 고용하는 등 필요노동을 농가별로 해결하고 있다. 대체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주 노동자를 배정받아 활용한다.

또한 계약 농가들은 키위 생산에 필요한 꽃가루와 생장을 조절해주는 비대제 그리고 비료 등의 투입물을 영농조합법인이나 수입업체를 통해 구득하고, 약품이나 설비 등도 기존 거래처를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이는 계약체결 당시 그린키위의 재배역사가 20년이 넘었고 키위 시장도 성장함에 따라 관련 요소시장도 상당히 성숙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도 키위생산에 필요한 주요 설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제스프리사는 포장 및 유통에 필요한 선과장(packhouse)과 저온저장고 시설을 보유하거나 공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설은 지방정부가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계약농가들도 일부 부담하여 설립되었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보건대, 계약농가에 대한 계약기업의 투입물 공급은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 지역농가들은 투입물을 자율적으로 구득하거나 자발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에 참여하고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입물 공급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약생산의 유형은, 투입물의 일부만을 공급하는 부분 계약(partial contract)으로 분류될 수 있다(Singh, 2002)³⁾.

2) 계약주체의 정보 제공

기업은 생산자에게 최적의 생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농산물의 획득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식재와 전정, 병충해 방제, 관개 및 수확 시점, 수출 기준에 맞는 약품의 선

정, 기업이 요구하는 작물의 특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Key and Runsten, 1999). 제스프리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대부분의 항목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생산기술, 병충해 방제, 그리고 수확 및 선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스프리사는 생산 관련 기술지도를 문서 교육과 실습 및 방문지도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제주지사의 직원(3인) 가운데 기술지도는 뉴질랜드인 1명과 한국인 1명이 맡고 있다. 이들은 농작업을 전정, 수분, 적화, 적과, 수확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시기에 해당 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계약기업은 병충해 방제와 냉해에서 오는 궤양병 방제를 위한 농작업 정보를 시기별로 안내하고 있다. 시기별로 약품의 용도, 최대 분무 횟수, 성분, 제품명, 사용 비율, 사용 시기, 잔류 허용치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제시하고 있다. 궤양병의 경우는 키위에 치명적일뿐 아니라 항생제가 필요하므로 제주지사에 '허가 요청서'를 제출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계약생산 농가의 궤양병 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계약기업은 수확시기와 선과, 유통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기술담당 매니저는 농장별로 과일을 점검하여 수확날짜를 결정하고, 선과장에서 검사, 선별, 포장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 감독한다. 이들은 수입과 유통을 담당하는 서울지사에서 출고 지시가 내려오면 지정된 유통사를 통해 대형마트에 공급한다.

한편, 계약생산이 성사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지방정부도 해외 기업과 계약생산을 진행하는 농가에 대해 여타 농가와 차별을 두지 않고 교육과 기술부문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계약농가들이 해외 키위 농업지역을 견학하고 학습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생산과정에서는 토양검사 및 재배 관리지침의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요컨대, 계약기업은 앞에서 살펴본 투입물의 경

우와 달리,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다양한 생산기술과 병충해 방제 기술, 출하기준에 맞는 약품의 선정 및 잔류 기준 등을 제공하고 최종 수확물의 수확시점 및 선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여타 개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계약생산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초국적 농식품 체계에서 계약주체 간 관계

농식품 체계(agri-food system)에는 일반적으로 농업 투입물을 생산하는 산업부문, 작물을 생산하는 영농부문, 식품의 가공과 포장 및 유통을 담당하는 식품 산업부문 그리고 가정의 식품 소비 부문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Whatmore, 2002).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 계약농가의 경작과 관련된 다양한 농작업을 비롯하여, 경작에 필요한 관련 투입물과 설비, 수확 이후 선과 및 포장에 의한 국내 유통 부문을 다루었다.

제주도의 계약농가는 초국적 유통업체 제스프리사와의 계약을 통해 제스프리사가 보유하고 있는 품종을 그들의 재배기준에 의거하여 생산하고 이를 해당 브랜드로 출하함으로써, 제스프리사의 글로벌 수급 전략에서 로컬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농가는 제스프리사가 주도하는 초국적 농식품 체계에 통합되고 있다.

그런데 초국적 농식품 체계에 통합되어 있는 지역 생산자들은 '토지를 소유한 노동자'(Davis, 1980)로 일컬어지거나 '계약생산이 기업의 구상(기능)과 농부의 실행(기능)을 분리함에 따라 농부의 탈속련을 야기한다'(Clapp, 1994, 81)는 설명과 같이 계약생산 이후에 농가의 지위 하락이나 영농에 대한 수동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연구지역에서도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기술

적 측면에서 계약농가의 생산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됨에 따라 생산자들이 이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계약생산에 참여하는 계약기업 제스프리스와 지역의 계약농가 등 계약생산의 주요 주체들은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특히 연구지역에서는 생산농가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능동적 참여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계약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은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농가와 제스프리스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계약기업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농가가 가격 결정권을 일정 정도 확보한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계약 농가는 생산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생산에서 기업은 생산자와 불균등한 권력관계에 놓이게 되고, 생산자는 고정자원에 대한 투자와 경작 패턴의 변화에 의해 계약 작물에 과도하게 의존함에 따라, 탈퇴가 제한되고 협상력이 감소하여 불리한 계약을 받아들이는 등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Key and Runsten, 1999). 그러나 연구지역 농가의 경우 원한다면 폐원이 가능하며, 실제로 계약을 해지한 농가도 여럿 발견된다.

셋째, 계약농가는 키위생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산요소 이외에, 새로운 도구나 생산 설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계약 농가들은 계약기업의 요구와 무관하게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농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개발하거나, 자연재해에 대비해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넷째, 계약기업의 기술지도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현지 농민과 협력 하에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뉴질랜드에서 행하던 방식대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제주도의 환경은 현지 농민이 더욱 잘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키위 생산방

식도 뉴질랜드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뉴질랜드는 노지재배와 곤충에 의한 충매 수분을 하고 제주도는 시설재배와 인공 수분을 하는 식이다. 따라서 실험 농가(10농가)와의 협력 하에 생육 과정에 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에 적합한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농가는 가격협상, 계약해지, 설비 투자, 기술지도 등의 측면에서 계약기업의 통제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계약기업과 상대적으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초국적 농식품 체계에 대한 지역농가의 통합의 방식은 제 3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한 수직적 관계와는 상이하하며, 이는 계약생산의 목적, 지역농업의 발전 경로, 그리고 지역에 축적된 영농기술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역농가가 계약생산을 통해 초국적 유통업체 제스프리스가 주도하는 초국적 농식품 체계에 통합되는 배경과 그 방식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제스프리 골드키위 계약생산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글로벌 수준에서 진행된 시장개방 압력과 이에 대한 국가의 수용, 그리고 위기극복을 위한 로컬 수준의 대응으로서, 대체 작목의 선택, 과수농업 중심의 지역농업 경로에 의한 관련 기술의 축적 그리고 이로 인한 관련 요소 시장의 성숙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지역농업에 대한 계약기업의 통제력은 제한되고, 지역농가와 기업 간 관계는 농가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거버넌스 관

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농업에 대한 계약기업의 부정적 영향이나 전횡은 최소화된다. 또한 계약농가가 새롭게 습득한 기술이나 설비가 지역으로 확산되고, 해당 작목의 지역 내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키위 농업은 지역 농업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제3세계의 수출작물 중심의 계약생산에서 나타나는 계약기업과 농가 간 불평등한 수직적 관계와 크게 차별화된다.

한편, 국내 지리학계에서는 1970년대를 정점으로 농업분야에 관한 연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오늘날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한주성, 2011). 그러나 그동안 국내 농업지역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그 동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계약생산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

- 1) 뉴질랜드에서 키위가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904년 Isabel Fraser가 중국에서 “Chinese Gooseberry” 씨앗을 가져오고, 이를 원예사 Alexander Allison이 재배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24년 Hayward Wright가 오늘날 전 세계 그린 키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헤이워드(Hayward) 품종을 개발하면서부터 뉴질랜드 키위산업은 급속하게 성장했다(<http://www.zespri.com>).
- 2) 제스프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키위의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으로 뉴질랜드 생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뉴질랜드 정부가 유통의 단일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이는 1988년 키위 생산자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 기관이 설립한 뉴질랜드 키위 마케팅 위원회(New Zealand Kiwifruit Market Board, NZKFMB)가 1997년 키위후르츠 뉴질랜드(Kiwifruit New Zealand)로 전환되고, 이와 함께 설립된 마케팅 자회사로서 키위 생산자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기업이자 정부의 통제를 받는 법인이다(Moran, et al., 1996; <http://www.zespri.com>).
- 3) 계약기업의 투입물 공급 수준을 기초로 계약생산의 유형

을 분류하는 경우 다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판매 및 구매 조건만 명시한 조달 계약(procurement contract), 투입물의 일부만 공급하고 농산물은 사전 협의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부분 계약(partial contract), 그리고 기업이 농가에 모든 투입물을 공급하고 관리하며 농부는 토지와 노동의 공급자가 되는 완전 계약(total contract)이 그것이다(Singh, 2002).

참고문헌

- 김병률·이명기·유찬희, 2009, 제스프리(ZESPRI)의 현황과 성공요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104, 41-59.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2, 해외 농산물 선진 수출입 시스템.
- 이재옥·최윤국, 1997, 농산물 수입 개방의 영향 평가와 수입관리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주성, 2011, 한국경제지리학의 발전 성과와 미래를 위한 준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3), 241-262.
- Boyd, William and Watts, Michael, 1997, Agro-industrial just-in-time: The chicken industry and postwar American capitalism, in Goodman, David and Watts, Michael, eds., *Globalising Food: Agrarian Questions and Global Restructuring*, London, Routledge, 192-225.
- Carney, Judith, 1994, Contracting a food staple in the Gambia, in Little, Peter and Watts, Michael, eds., *Living under Contract: Contract Farming and Agrarian Transformation in Sub-Saharan Africa*,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67-187.
- Davis, J., 1980, Capitalist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the exploitation of the propertied laborer, in Buttel, Frederick and Newby, Howard, eds., *The Rural Sociology of Advanced Societies: Critical Perspectives*, London, Croom Helm, 133-153.
- Key, Nigel and Runsten, David, 1999, Contract farming, smallholders, and rural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The organization of agroprocessing firms and the scale of outgrower production, *World Development*, 27(2), 381-401.
- Konings, Piet, 1998, Unilever, contract farmers and co-

- operatives in Cameroon: Crisis and response,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26(1), 112-138.
- Little, Peter and Watts, Michael, eds., 1994, *Living under Contract: Contract Farming and Agrarian Transformation in Sub-Saharan Africa*,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Marsden, T., Munton, R., Ward, N. and Whatmore, S., 1996, Agricultural geography and the political economy approach: A review, *Economic Geography*, 72, 361-375.
- Moran, Warren, Blunden, Greg and Bradly, Adrian, 1996, Empowering family farms through cooperatives and producer marketing boards, *Economic Geography*, 72(2), 161-177.
- Pritchard, W.N., 1998, The emerging contours of the third food regime: Evidence from Australian dairy and wheat sectors, *Economic Geography*, 74(1), 64-74.
- Singh, Sukhpal, 2002, Contracting out solutions: Political economy of contract farming in Indian Punjab, *World Development*, 30(9), 1621-1638.
- Watts, Michael, 1994, Life under contract: contract farming, agrarian restructuring, and flexible accumulation, in Little, Peter and Watts, Michael, eds., *Living under Contract: Contract Farming and Agrarian Transformation in Sub-Saharan Africa*,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1-77.
- Whatmore, Sarah, 2002, From farming to agribusiness: Global agri-food network, in R.J. Johnston, Taylor, Peter and Watts, Michael, eds., 2nd ed., *Geography of Global Change: Remapping the World*, Oxford, Blackwell Publishing, 57-67.
- White, Ben, 1997, Agroindustry and contract farmers in upland West Java,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24(3), 100-136.
- <http://www.zespri.com>
<http://www.zespri.eu>
<http://www.zespri-jp.com>
- 교신: 장영진,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 7번지,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전화: 043-230-3508, 이메일: jangyj@knue.ac.kr
- Correspondence: YoungJin Jang,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an 7, Darak-ri, Gangnae-myeon, Cheongweon-gun, Chungbuk, 363-791, Korea, Tel: +82-43-230-3508, E-mail: jangyj@knue.ac.kr

최초투고일 2013년 10월 5일
수정일 2013년 11월 23일
최종접수일 2013년 12월 26일